



유턴기업 지원대책에 산업계 목소리 담는다

- 「국내복귀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」 열려
- 4월 중 첨단산업 유턴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「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」 발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3.14.(목) 유턴기업, 대한상의·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, 반도체협회·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, 코트라·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「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「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,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.

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「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」을 발표할 계획이며,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,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,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“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”이라고 언급하고, “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현진	(044-203-4090)
	해외투자과	담당자	사무관	이경진	(044-203-4095)

참고

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 개요

□ 목적

-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(안) 및 유턴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

□ 회의개요

- 일시·장소 : '24.3.14(목) 15:00 ~ 16:00 / 서울
- 참석자(안)
 - [산업부] 무역투자실장(주재), 해외투자과장 등
 - [유관기관] KOTRA, 한국산업단지공단
 - [경제단체] 대한상공회의소, 중견기업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
 - [업종단체] 반도체산업협회,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, 자동차산업협동조합, 배터리산업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
 - [기업] 유턴기업 및 의향기업 등 5개社
- 논의내용
 - 국내복귀 지원계획(안) 및 유턴기업 지원관련 애로·건의사항 등

□ 진행순서

시간		내 용	비 고
15:00 ~ 15:05	5'	■ 모두 발언	무역투자실장
15:05 ~ 15:20	15'	■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(안) 설명	산업부
15:20 ~ 15:55	35'	■ 토 론	참석자
15:55 ~ 16:00	5'	■ 마무리 발언	무역투자실장